기부천사 있어 훈훈한 졸업식장

장성고-70대, 체납 기숙사비 87만원 대납
광주일고-재미동포 매년 1,500달러 기탁
광주고-동문들 가난한 졸업생에 400만원

졸업시즌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에 후원금이 답지해 졸업식장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장성고는 최근 70대로 추정되는 한 할아버지로부터 87만원을 전달받았다. 이 할아버지는 장성고에 전화를 해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 학비나 급식비 등을 내지 못해 마음의 짐을 안고 있는 학생이 있느냐"고 물은 뒤 87만원의 기숙사비를 미납한 학생이 있다는 말에 곧바로 해당 금액을 보내왔다.

장성고 반옥진 교장은 "고마움에 보답하게 위해 신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극구 사양 하시더라"면서 "'나눔의 교육' 사례로 이 같은 사연을 학생들에게도 알렸다"고 말했다.

광주제일고도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졸업식마다 1천500달러의 장학금을 기증받고 있다.

미국에 거주중인 기탁자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모교인 광주일고(옛 광주고보)에 '강패밀리'란 이름으로 매년 졸업식에 맞춰 1천500달러를 기탁하고 있다. 강씨의 아버지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애국지사인 고 강해석 선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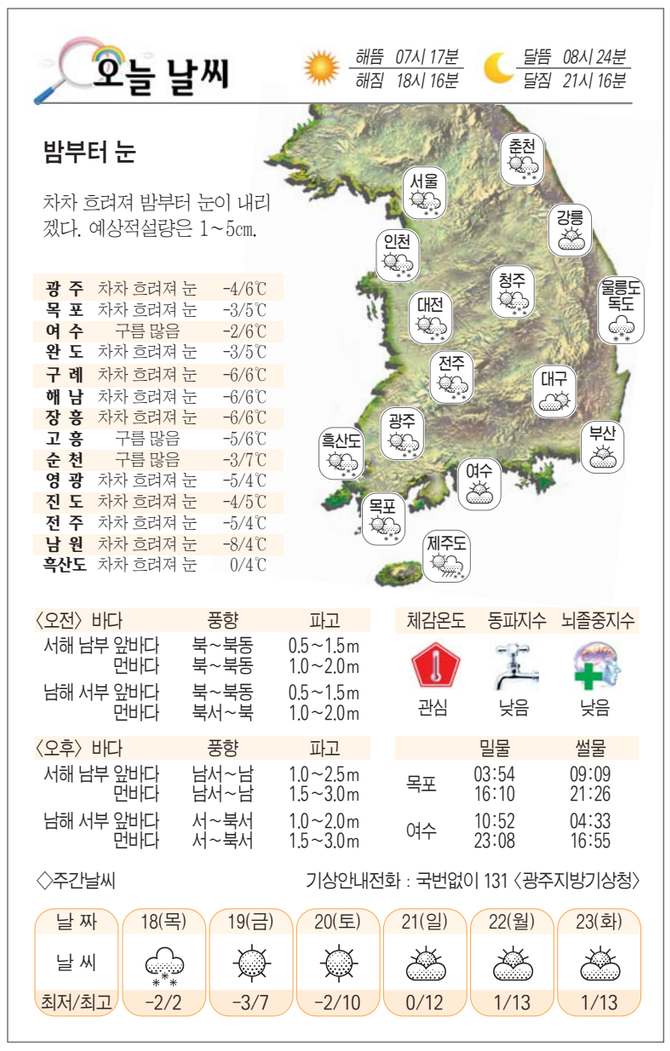
광주제일고는 올해 졸업식에서 1천500달러와 동문들이 모은 200만원의 장학금을 성적 우수 학생에게 전달했다.

광주고도 최근 졸업식에 앞서 4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 일부 동문들이 뜻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이 장학금은 지난 10일 열린 졸업식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졸업생 등에게 전달됐다.

김병채 광주일고 교장은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졸업시즌이면 동문회나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후원자들 덕분에 졸업식장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 지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춥다 추워" 16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한 상인이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치동물원 사파리 만든다

광주시, 500억 투입 2015년까지 시설 개선

광주시가 오는 2015년까지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치동물원을 관람객들의 참여와 체험이 크게 강화된 '감성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킨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1년까지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동물원 내 수목원 뒤편 공간과 언덕을 이용해 관람객들이 직접 기린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기린 테라스사'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호랑이, 사자 등 맹수를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워킹사파리(맹수사)', 표범사, 맹금류사 등도 설치된다. 2단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60억원이 투입돼 큰물새장 등 10여 개의 사업이, 230억원이 투입되는 3단계(2014~2015년) 사업은 광주패밀리랜드 내 대야제 주변 정비사업 및 주차장 조성 등 시설개선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광주시는 18일 오전 용역최종보고회에서 도시공원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1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발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우치동물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꾸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사업이 끝나면 우치동물원은 사람과 동물이 감성을 주고받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생태학습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치동물원에는 현재 호랑이 등 모두 138종 653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초·중·고 교장공모제

광주·전남 15%로 확대

앞으로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의 교장 공모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초·중·고교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던 교장공모제는 올해부터 전체 학교의 15%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결원이사 선임 부당 행정심판청구

교과부 상대 법적 대응

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가 결원이사 선임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결원이사 선임 부당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와 추가 선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일자로 이사회가 정상화된 만큼 결원이사(2명) 선임권은 현 이사회에 있다"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어기고 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의·약사도 리베이트 받으면 형사처벌

최장 1년 자격정지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형사처벌과 최장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제약업계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이 싸게 산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과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신고해 확인되면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